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Public Libraries: The Case of Humanities Lectures at the Dongdaemun-Gu Public Digital Library

조 찬 식 (Chan-Sik Cho)*

나 병 준 (Byung-Joon Na)**

목 차

1. 서론	4.1 진행과정
2. 이론적 개괄(概括)	4.2 “사서, 책을 권하다”(2013년)
2.1 공공도서관과 사서직의 전문성	4.3 “사서가 권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2014년)
2.2 인문학 강좌의 확산	5. 결론
3.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개관(概觀)	
4.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의 조사·분석	

초 록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변화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여러 업무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문학 강좌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와 관련해서 사서들의 전문적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2013년과 2014년의 인문학 강좌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과 내용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과 대중적인 인문학 강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role and functions of public libraries have become more diverse and complex,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public libraries is more emphasized than before. Meanwhile, the importance of humanities has been highlighted and as a result, humanities lectures are diffused along with the social change and advancement; something that most public libraries take into consideration. In that, this study look into the case of the Dongdaemun-Gu Public Digital Library with emphasis on 2013 and 2014 when the library tried to develop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relation to lectures on humanities. And, based upon the analysis on the process of the program and survey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public libraries and humanities lectures for public in order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n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in public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서, 사서직의 전문성, 인문학 강좌,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Public Library, Librarian,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hip, Humanities Lectures,
Dongdaemun-Gu Public Digital Library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cho@dongduk.ac.kr)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관장(nbj7777@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5년 4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4월 2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195-213,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195]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일반 공중을 그 봉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방대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 또한 복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부방이 아닌 시민의 대학(people's university)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은 사서이고, 사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해당되는 직업을 이르는 것이 사서직(librarianship)이다. 사서직은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이용하는 외에도 각종 문화행사와 평생교육 등을 제공하는 도서관업무와 관련된 전문직이다. 즉 공공도서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 그리고 봉사정신과 책임감 등의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공도서관이란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직의 전문성은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해주며, 도서관의 기능을 통하여 도서관의 설립과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한다.

한편 정보화가 가속되는 현대사회는 점점 다원화되고 복합적으로 진화되는 있는 반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인간화, 몰개성화, 자아상실 등의 어두운 면을 동반하여, 삶의 의미와 성찰 그리고 나아갈 바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

유하고 고민하는 인문학적 요소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문(文)·사(史)·철(哲), 즉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별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문학 강좌가 확산되는 있는 것은 일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이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인문학 강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적 기구로서 공공도서관은 인문학 강좌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대중적인 인문학 강좌의 확산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비하는지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전문성에 따라 다른 효과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과 확산되는 인문학 강좌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사서직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와 관련해서 사서들의 전문성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2013년과 2014년의 인문학 강좌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과 내용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과 대중적인 인문학 강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이론적 개괄(概括)

2.1 공공도서관과 사서직의 전문성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의 교육, 정보, 자아실현, 여가 등을 추구하거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기구로서 모든 정보자료를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집, 정리, 조직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된 사회의 산물이자 사회적 기구로서 지식정보의 축적과 전달을 통해 사회의 존립 또는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별된 기록정보의 유통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없다면 지식과 정보의 축적과 이용이 불가능해지며, 체계적인 사회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정보문화기관이자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정립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축인 것이다. 이

런 공공도서관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적 동질감을 유도하게 된다(조찬식, 조미아 2011).

이에 사회적 기구로서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매우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사회문화센터, 여가선용센터, 그리고 생활편의센터로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복잡적이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방대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서는 이러한 공공도서관과 사회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고 가능한 자원과 재원을 이용하여 사회의 지적, 문화적 요구에 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 봉사라는 측면으로 사회와 연결이 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 체제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사회와 상호교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서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서관 봉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되며,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이란 전문성을 기본적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조찬식 1996). 물론 최근 ‘전문직의 사회학’은 전문직/비전문직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한 직종에 대한 전문성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경우 어느 면으로든지 전문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봉사를 행하

기 위한 지식, 철학, 이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서는 이러한 도서관 봉사에 따른 책임과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시에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질(competencies)이라 할 것이다(조찬식, 조미아 2011). 자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한 정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과 개인적인 태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질은 곧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서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식(knowledge)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친숙한 상태 또는 경험한 내용을 인지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서에게 필요한 지식으로는 언어나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과 같은 기본지식, 이용자 봉사를 위한 정보전문가의 전문 주제지식, 정보나 문헌의 형태, 구조 등에 대한 문헌정보학 일반 지식, 봉사지역, 대상자, 업무 특성 등 정보업무 환경에 대한 지식, 개별적 정보업무에 대한 지식 등이 있으며, 사서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지식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기술(skill)은 개인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지적 사고능력이나 분석력 등의 기본기술, 특정 정보활동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시간이나 예산관리 등의 기타 관리기술

로 구분된다. 셋째, 태도(attitude)는 사서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신적·감정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태도는 자신의 직무나 조직에 대한 책임성과 봉사에 대한 업무관련 태도와 자신감이나 윤리성 등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 경험으로 형성되지만,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배양도 가능하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기구로 그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방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사서란 전문직으로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자질은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양하는 가운데 충족되어 질 수 있다.

2.2 인문학 강좌의 확산

정보화가 가속되는 현대사회는 점점 다원화되고 복합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반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인간화, 물계성화, 자아상실 등의 어두운 면을 동반하여, 삶의 의미와 성찰 그리고 나아갈 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인문학적 요소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 강좌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일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영역이다(김기덕 2014). 즉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대상으로 하여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문학의 개념은 시세로(Cicero)가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원칙으로 삼은 라틴어 『휴마니타스』(humanitas: humanity 또는 humaneness)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인문학을 중시하는 경향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근세에 이르는 동안 일반교양교육이나 고전교육의 핵심이 되었고 특히 18세기의 프랑스, 19세기의 영국과 미국의 교양교육의 기본이념이 되며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 할 수밖에 없다(박은자, 배순자, 최은주 1997; 인문과학연구소 1995). 인문학에 대한 영역을 미국 국회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문학이란 언어·언어학·역사·법률·철학·고고학·예술사·비평·예술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학이나 신학을 인문학의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념의 복잡성 때문에 무엇이 인문학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예술이나 신학이 인문학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의 인문학은 일반적으로 문(文)·사(史)·철(哲), 즉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별되고 있다(김기덕, 이병민 2014; 신봉승 2011).

먼저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학이라고 하면 시, 소설, 수필 등으로 분류되는 문학작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적으로는 '문학'이라는 용어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문학은 문학작품의 구성, 그 창작과 감상,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역사적 문맥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문학은 한 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예컨대 은유, 상징, 리듬, 인물, 시점, 비극성 등의 의미와 작품 속 기능에 관해 연구한다. 또한 문학은 작가가 한 편의 작품을 생산하는 메커니즘과 독자가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문학작품에 대한 감수성 외에 사회, 역사, 정치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 또한 필요로 함을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역사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온 사회생활 총체로서의 '과거'를 의미한다. 즉 역사학이란 과거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회 변화, 사상, 문화를 다루는 학문으로 과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 혹은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을 역사로 보았을 때, 역사학은 과거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하여 그 후속 사실들을 시간적, 연속적으로 규명해나가는 학문이다. 즉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므로 역사가 어떻게 되어왔고 어떻게 쓰여 있는지, 역사적 기록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를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초기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한 연구로 바꾸면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개인적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이 주제가 되어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종교적인 색채를 띠었던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식이나 과학의 기초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역사나 인간을 철학의 중심문제로 삼기도 하였다. 이처럼 철학의 연구대상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관된 철학 고유의 연구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른바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관한 일반적 문제의 학문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문학의 대표적인 영역들에서 나타나듯이, 인문학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사유하면서 주변과 환경에서 자아를 재발견하는 바탕이 된다. 인문학은 특히 정보기술이 발전하여 자칫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자아에 대한 정체성과 이에 관한 역사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오늘날에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또한 역사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다. 정보혁명을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한때 동양철학에 심취했던 영향을 받은 예들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문학 강좌가 확산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우응순 2014). 사실 인문학이 학문적 지식의 습득에 머무른다면 오늘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 강좌는 그 내용에 대한 이론이나 학문적 지식보다는 현대사회에서 '왜', '어떻게', '그래서' 등에 대해 사유하는 능력과 방법을 제고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 강좌는 생활과 관련된 인문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적 강좌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설 문화기관이나 기업 또는 각종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좌개설이나 시민의 참여도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개관(概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그 지역이 서울 도심 4대문의 하나인 동대문 밖에 자리한데서 유래한 동대문구의 북서쪽 청량리동 홍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약 40만 명의 동대문구는 청량리지역, 경동시장, 청과시장을 중심으로 부도심 근린생활기능을 수행하는 동부서울의 중심지로서 천호대로, 왕산로, 고산자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고 청량리역 등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주요 교통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의 산실이 될 한국과학기술원, 산업연구원 등 8개의 전문연구시설과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등 4개의 대학교, 그리고 48개의 초·중·고교가 소재하고 있는 교육도시이자 청량리 부도심권균형발전촉진지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등 전략도시개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어 동부서울의 중심도시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위와 같은 동대문구의 대중성과 교육적 기반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6월 29일에 개관되었다. 그리고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설립주체인 동대문구청이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자질의 전문적인 사서들에 의한 위탁운영을 지향함에 따라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에 의해 위탁·운영되었다.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은 독서를 통한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한 아홉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1년 6월에 출발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연대운동으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2011년 3월 28일부터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받아 지식인의 관문으로 통하는 동시에 시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현대식 시설과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도서제공 및 강좌제공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이 지식으로 통하는 관문이며, 개인과 집단의 평생교육, 자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대문구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Dongdaemun-gu:

L4D)으로서의 사명을 표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Devotion(헌신), Delivery(정보전달), Development(자기계발과 평생교육), Democracy(민주적인 참여)라는 경영철학을 통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열람실이 별도로 없는 자료제공 중심의 도서관이다. 자료실은 서가와 열람석으로 배치하고 열람석에는 최신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검색과 자료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도서와 잡지, DVD 등의 비도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표방하여 전자책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업무가 가능하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1층 전부를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배치하였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1주일 내에 제공하는 원-워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수준 높은 다양한 강좌들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자질의 전문적인 사서에 의해서 수행되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 관장 포함 19명의 사서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현황(2015년 2월 기준)

◎시설 및 좌석 현황

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좌석
지하3층, 지상 3층	1,161㎡(351평)	3,094㎡(937평)	162석(자리나눔 74석, 기타 88석)

◎일반도서 (단위: 권)

일반도서	아동도서	유아도서	계
73,563	20,756	6,606	100,925

◎비도서 (단위: 점)

음성도서	점자도서	DVD	웹 콘텐츠	오디오북	전자책	정기간행물	계
3,619	1,103	3,701	1,389	71	36,763	164	46,810

4.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의 조사·분석

4.1 진행과정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2006년에 개관한 이래 '사색과 성찰의 공간', '배려와 나눔의 공간'이라는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인문학 강좌를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문학적'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사유를 향상시키는 공간이라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지향점과 정보화가 가속되어가는 시대적 요청이 맞아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생활 속의 인문학'을 표방하며 차별화되고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오면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인문학에 관한 강좌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개관 초기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는, 대부분의 인문학 강좌가 그렇듯이,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는 저자와의 만남이나 독서관련 특강 등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도서관에서 선정된 인문학 도서와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서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운영형태로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문학 강좌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가 거듭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외부 강사를 활용한 인문학 강좌에 대한 성찰이 일어났다. 먼저 도서관에서 선별한 인문학 서적에 적절한 강사를 파악하고 섭외하는 일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초청된 외부 강사는 대부분 일회성 강의 외에는 도서관이나 주민과 어떠한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책과 자료의 전문가인 사서가 책을 주제로 해서 어린이가 아닌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자칫 행사전문 인력으로 전락하여 철저히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찰은 사서들의 전문성 역량개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2013년과 2014년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는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기로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서들이 인문학 강의를 책임

진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2013년에는 기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계승함과 동시에 확대 발전시키고자 인문학 강좌를 2개의 열개로 운영하였으며, 그 기간에 쌓여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사서들이 인문학 자료들을 엄선하여 연구하고 사서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문고전의 현대적 해석 방법을 소개하는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사서가 직접 주도하고 강의하는 2013년 "사서, 책을 권하다"와 2014년 "사서가 원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이란 주제의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많은 가지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평가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사서, 인문고전 강연 36.5도"란 제목으로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사서들이 엄선한 인문고전을 강연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2 "사서, 책을 권하다"(2013년)

4.2.1 개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개관 이후 7년여간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차별화하여 '인문학'으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오면서 나름대로 인문학으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고, 사서는 데스크에서 대출·반납만 하거나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기존의 인터넷에서 자료를 활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신간

도서를 안내한다는 무미건조한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동성을 갖춰야 한다는 당위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우선 사서라는 전문직종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보해야하며,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 간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도서관, 수동적 도서관, 행정위주의 도서관을 극복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즉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정보화 공정의 새로운 인식론을 제시하고, 책읽기의 즐거움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서관 모델을 구상하며, 읽기·쓰기·창작물 제작을 통한 지성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촉발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는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사서들이 새로 나온 신간도서를 사서 직접 읽어 본 후에 서평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서가 원하는 신간안내 책자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사서들이 책을 보기 시작했고, 직접 서평을 작성하였다.

다른 공공도서관의 사서들과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사서들도 평소에 책을 읽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표지와 목차를 보는 것을 넘어, 매월 1권의 책을 정해서 최소 3~4회에 걸쳐 다시 보며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책 읽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읽은 책에 대해, 매월 25일까지 직접 서평을 작성하였다. 웹 서평을 통한 복사와 '붙여넣기'

로만 만든 서평으로는 도서관 회원들을 앞둔 무대에 서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기에 직접 읽고 쓰는 서평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매월 생산된 서평 중 도서관 내부의 자체 심사를 거쳐 우수작 5편을 선정하고 그 중 관내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에 게재하여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는 도서관의 잠재적 봉사 대상 주민들에게도 책을 소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읽고 쓰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장서정책 및 도서출판의 동향을 파악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을 위한 월별 서평작성 및 신문 게재 운영실적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매월 작성된 사서들의 서평을 소식지 형태의 소책자로 엮어, 도서관 내부의 각 층별 안내 및 자료실 데스크에 비치하여 도서관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1차적인 책소개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회원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고 지식과 지성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둘째 단계로 이들 신간 도서 중에서 자체 내부 선정회의를 통하여 우수한 신간을 뽑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간도서에 대한 북토크 및 신간 자료에 대한 질의와 응답 및 토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 ‘사서, 책을 권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 제출된 서평 가운데, 매월 3편을 우수 서평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서평을 작성한 사서는 매월 1회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책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지하2층 시청각실에서 우수도서를 추천하고 추천된 도서의 저자와 책의 내용은 물론, 저자의 다른 저작물 또는 추천된 도서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한 후 도서관 회원들과의 질의와 응답,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의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도서관 회원들에게 독서운동의 개념은 ‘책읽기 → 서평쓰기 → 토론과 대화 → 서평집 발간으로 이어지는 지성의 선순환 구조’임을 소개하고 이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추천 및 우수도서를 소개하고 도서관 회원들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도서관 회원들이 더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단계로 지난 1년여 동안 작성한 서평을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독서를 통한 삶의 여유를 갖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을 포함한 최근 3년간 동대문신문에 게재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사서직원

<표 2> 월별 서평 작성 및 신문 게재 운영실적

구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평 작성	67편	9편	6편	7편	8편	6편	7편	7편	6편	7편	4편
신문 게재	29회	3회	3회	3회	3회	2회	4회	2회	3회	3회	3회

〈표 3〉 “사서, 책을 권하다”의 프로그램 내용

회차	일자	추천도서/작가	담당사서	참석인원
1회	3/28	고마워 너를 보내줄게: 존 카츠 아버지의 성: EBS 다큐프라임 할랄, 신이 허락한 음식만 먹는다: 업익란	권기성 문경애 장윤정	43명
2회	4/25	언론이 말해 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박종성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강세형 중의 기원 이펙트: 재닛 브라운	나병준 최유미 장 훈	21명
3회	5/23	목소리를 보았네: 올리버 색스 책으로 노는 집: 김청연 스피릿 로드: 탁재형	박상용 엄경이 임 준	18명
4회	6/27	마법의 순간: 파올로 코엘로 그들은 왜 뻔뻔한가: 아론 제임스 미각의 지배: 존 앨런	손정미 나병준 권기성	25명
5회	8/22	에피소드 한국사: 표학렬 서울형 혁신학교 이야기: 이부영 왜 책을 읽는가: 샤를 단치	장윤정 임 준 문경애	27명
6회	9/26	도로와 함께 한 인생 여행: 미치 앨봄 28: 정유정 사기꾼: 존 그리샴	최유미 장 훈 나병준	30명
7회	10/31	망진책,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피에르 바야르 서민의 기생충 열전: 서민 옛그림을 보는 법: 허균	문경애 장 훈 나병준	30명
8회	11/28	나는 의사다: 나는 의사다 제작팀 개념의료: 박재영 세상을 뒤집는 의사들: 스티브 브르워	권기성 장윤정 최연경	30명
9회	12/26	관찰의 기술: 양은우 패턴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다: 이영직 인생수업: 법륜	임 준 엄경이 최유미	30명
합계				254명

들의 서평을 정리하여 2013년 연말에 두 번째 도서관 서평집으로 1,000부를 제작하여 도서관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이 서평집 제작 과정에서 사서들이 직접 읽기부터 시작하여 단행본 출간까지의 공정을 기록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완성 가능한 지성매뉴얼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요컨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는 기존의 수동적인 도서관 독서 및 인문학 강좌에서 탈피하여 사서가 신간

자료를 읽음으로써 사서의 인식의 변화를 통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서평을 작성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파함과 동시에 지식과 지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평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지역 사회 독서운동의 시발점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4.2.2 설문조사 분석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과 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가 2013년 3월 28부터 12월 26일까지 프로그램마다 매번 총 9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리고 설문내용은 성별, 연령, 특강 및 강사 만족도, 행사 재참여의향 등이며, 프로그램 참가자 총 254명중 55명의 설문 불참자를 제외한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의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사서, 책을 권하다”의 설문 응답 결과

성별	남자	81명(40.7%)
	여자	118명(59.3%)
계		199명(100%)
연령	10대	23명(11.6%)
	20대	37명(18.6%)
	30대	57명(28.6%)
	40대	53명(26.6%)
	50대 이상	29명(14.6%)
계		199명(100%)
만족도1 (행사장소, 시설, 시간 등)	매우만족	114명(57.3%)
	만족	60명(30.1%)
	보통	24명(12.1%)
	불만	1명(0.5%)
	매우불만	-
계		199명(100%)
만족도2 (프로그램 내용 및 태도 등)	매우만족	128명(64.3%)
	만족	68명(34.2%)
	보통	3명(1.5%)
	불만	-
	매우불만	-
계		199명(100%)
향후 유사한 행사 참여 의사	매우많음	127명(63.8%)
	많음	67명(33.7%)
	보통	5명(2.5%)
	적음	-
	매우적음	-
계		199명(100%)

위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여자(59.3%)가 더 많았으며, 연령으로 볼 때는 30대(28.6%)와 40대(26.6%)를 중심으로 각 연령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사장소, 시설, 시간 등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사서의 태도 등에 대한 만족도가 공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의 지속적인 운영에 커다란 동인이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3 “사서, 책을 권하다”는 사서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참여자의 전폭적인 호응을 유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의 ‘기타의견’에 나타난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 참여자A: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습에 좋은 느낌을 받았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2013. 3. 28 설문조사 중에서)
- 참여자B: 좋은 프로그램인거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이 좋았습니다.(2013. 4. 25 설문조사 중에서)
- 참여자C: 도서관 사서가 직접 책을 소개하니 더 좋음.(2013. 5. 23 설문조사 중에서)
- 참여자D: 책 소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영역까지 건드린 점이 인상적이다.(2013. 8. 22 설문조사 중에서)
- 참여자E: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집중도가 좋았음.(2013. 12. 26 설문조사 중에서)

- 참여자F: 주제를 연결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음.(2013. 12. 26 설문조사 중에서)
- 참여자G: 2014년에 문사철18로 발전된다니 기대가 됨.(2013. 12. 26 설문조사 중에서)

4.3 “사서가 원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2014년)

4.3.1 개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2013년에 “사서, 책을 권하다”라는 사서가 진행하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사서들의 자기계발 효과를 발견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13년에 진행한 경험을 디딤돌 삼아 더 발전된 형태인 “사서가 원하는 인문고전 ‘문·史·哲 18’”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사서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자료에 대한 강연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사서들이 자료에 대한 전문가라면 진정으로 극복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과 의지에 따라 각종 자료와 논문을 바탕으로 준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은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계는 도서관 사서의 인문 고전 연구 및 강의안 작성이었다. 즉 사서들이 양질의 인문고전을 선별하고 그 내용을 이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선정된 인문학 관련 도서는 주로 고전으로 알려진 주홍글씨, 구운몽, 오만과 편견, 열하일기 등의 동서양의 고전문학과 한국통사, 택리지, 역사란 무엇인가 등의 역사서를 두루 거쳐 한비자, 우파니샤드, 군주론 등의 철학서까지 문학, 역사, 철학의 18종을 고루 선별하였다.

그 18종은 구체적으로 문학(文學) 10종, 역사(역史) 5종, 철학(哲學) 3종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단계는 각 인문학 강좌의 회차별 ‘문·史·哲 18’ 소책자 제작 및 배포의 과정이다. 즉 강연자로 자원한 8명의 사서들은 특정 출판사의 책이 아니라 관련된 가능한 많은 종의 책을 모으고 몇 개월에 걸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강연 전 미리 해당 고전에 대한 자료를 소책자로 제작하고, 도서관 각 자료실, 안내데스크, 사무실 등에 비치·배포하여 강연 및 인문고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대출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셋째 단계는 ‘사서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문·史·哲 18’ 강연의 진행이다. 사서가 직접 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가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는 양질의 인문고전과 그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행간에 담긴 의미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매회 2차에 걸쳐 두 종의 도서에 대한 강연으로 구성, 총 9회에 걸쳐 ‘사서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문(文)·사(史)·철(哲) 18’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강연을 개최했다.

이와 같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4 “사서가 원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의 도서목록과 강연 일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넷째 단계는 1년간 작성 및 진행해온 인문학 강좌의 내용을 모아 연말에 책자 발간하였다. 2014년 연말에는 1년간 만들어진 18종의 인문고전에 대한 배포자료를 ‘문(文)·사(史)·철(哲) 18 자료 모음집’으로 2,000권을 제작, 발간하여 서울 소재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로 발송하여 미래의 사서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일

〈표 5〉 ‘文·史·哲 18’ 도서 목록 및 강연 일정 정리

회차	일자	제1강연			제2강연			참석인원
		서명	구분	담당사서	서명	구분	담당사서	
1회	1/23	한비자	철학	나병준	주홍글씨	문학	나병준	58명
2회	3/20	구운몽	문학	최유미	금오신화	문학	나병준	65명
3회	5/15	이방인	문학	남혜운	한중록	문학	나병준	67명
4회	5/29	오만과 편견	문학	김미경	택리지	역사	장훈	58명
5회	7/24	열하일기	문학	장훈	징비록	역사	나병준	68명
6회	8/28	호밀밭의 파수꾼	문학	장윤정	우파니샤드	철학	나병준	65명
7회	9/11	삼국유사	역사	장윤정	전우치전	문학	김미경	66명
8회	9/25	한국통사	역사	이정민	사씨남정기	문학	권기성	54명
9회	11/20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권기성	군주론	철학	남혜운	58명
합계								559명

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관내 중고등학교 도서관과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동시에 비치하여 독서진흥운동을 펼쳐나갔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4 ‘사서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문(文)·사(史)·철(哲) 18’을 통해 1년간 작성 및 진행해온 인문학 강좌의 내용을 모아 연말에 책자 발간하여 비치·배포한 현황은 〈표 6〉과 같다.

그 결과 ‘사서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문(文)·사(史)·철(哲) 18’에 해당하는 모든 도서의 대출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여 주민들의 독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예컨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하나의 테마

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테마’라는 별칭기호를 부여한 ‘테마공감’ 서가를 종합자료실 내에 운영하였다. 2014년에는 첫 번째 테마를 “인문학, 함께 읽는 文(문)·사(사)·철(철) 18”로 정하였고 구운몽, 오만과 편견, 열하일기 등의 강연 관련도서를 테마서가에 비치해 이용자와의 인문학적 소통을 꾀하였다. 그리고 두 달간 운영된 테마서가에 비치된 자료들의 대출증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표 7〉과 같이 대출횟수가 약 2.57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증가를 통한 독서운동의 활성화는 이용이 저조했던 중고등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작은도서관까지 확장되었다.

〈표 6〉 기관별 자료모음집 비치 및 배포 현황

기관명	기관수	기관별 배포부수	총 배포부수	비고
중학교	15개	40부	600부	경희중학교 외
고등학교	11개	40부	440부	휘경여자고등학교 외
주민센터	14개	50부	700부	청량리동 주민센터 외
서울 소재 대학 문헌정보학과	11개	학교별 상이	60부	각 교수연구실 발송
본 정보화도서관	관내	200부	200부	자료실 데스크 비치
전체	52개		2,000부	

〈표 7〉 독서캠페인 후 ‘文·史·哲 18’ 관련도서관의 대출증감현황 분석¹⁾

기관명	강연관련 소장도서	캠페인 이전 2개월		증감 건수	캠페인 이후 2개월	
		총 대출건수	평균 대출건수		총 대출건수	평균 대출건수
휘경여고 도서관	50권	27회	0.54회	116▲	143회	2.86회
제기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20권	3회	0.15회	39▲	42회	2.1회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100권	105회	1.05회	155▲	257회	2.57회

요컨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4 “사서가 권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은 3가지 측면에서 그 성과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도서관 이용자에게 인문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고, 고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인문학이 아닌 익숙한 인문고전을 주제로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정기적인 강연을 통해 인문고전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공유하였다. 이용자들에게 인문고전에 대한 접근점과 현대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며 ‘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사서’ 고유의 역할, ‘도서관은 곧 책’이라는 ‘도서관’ 고유의 역할 수행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사서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사서의 자발적인 주도하에 강연 자료 선정·연구·강연·창작물 제작이라는 지성의 선순환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인문학 분야에 대한 사서의 역량, 참고봉사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강연을 담당한 사서들은 강연 후, 이용자들이 사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강연에 참가한 이용자들은 강연 사서를 마주할 때마다 ‘사서 선생님’ 또는 ‘강연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강연 도서에 대한 생각을 심층적으로 나누기를 원했다. 이는 사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며 사서들의 자존감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문학에 대한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새로운 독서부흥운동을 제시할 수 있었다. 강연 참여자들은 강연을 들은 뒤 강연 도서를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고, ‘사서와 함께하는 인문학 Concert 文(문)·史(사)·哲(철) 18’에 해당하는 모든 도서의 대출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이용이 전무했던 중고등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소장된 인문고전들의 대출이 증가되는 것도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4 “사서가 권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이 이용자들의 독서 흥미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더불어 건전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1) 휘경여자고등학교 사서 및 제기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담당자에게 대출실적 관련자료를 의뢰한 결과임.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 준 것이라 할 것이다.

4.3.2 설문조사 분석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4 “사서가 권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과 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가 2013년 1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번 프로그램마다 총 9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리고 설문내용은 성별, 연령, 특강 및 강사 만족도, 행사 재참여 의향, 참여목적, 참여경로 등이며, 프로그램 참가자 총 559명중 265명의 설문 불참자를 제외한 294명(52.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4 “사서가 권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의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와 같다.

<표 8> “사서, 책을 권하다”의 설문 응답 결과

성별	남자	118명(40.1%)
	여자	176명(59.9%)
계		294명(100%)
연령	10대	1명(0.3%)
	20대	52명(17.7%)
	30대	83명(28.2%)
	40대	73명(24.8%)
	50대이상	85명(29.0%)
계		294명(100%)
운영취지 이해도	안다	146명(49.6%)
	조금 안다	114명(38.8%)
	모른다	34명(11.6%)
계		294명(100%)
강연 참여 목적	여가선용	42명(14.3%)
	자기계발	155명(52.7%)
	정보습득	97명(33.0%)
계		294명(100%)

강연내용 만족도	매우만족	163명(55.4%)
	만족	124명(42.2%)
	보통	7명(2.4%)
	불만	-
	매우불만	-
계		294명(100%)
강연 재참여 의사	매우많음	167명(56.8%)
	많음	114명(38.8%)
	보통	13명(4.4%)
	적음	-
	매우적음	-
계		294명(100%)
참여경로	도서관홈페이지	114명(38.8%)
	안내문자	39명(13.3%)
	주변추천	61명(20.7%)
	홍보포스터	45명(15.3%)
	기타	35명(11.9%)
계		294명(100%)
강연시설 만족도	매우만족	159명(54.1%)
	만족	118명(40.1%)
	보통	16명(5.5%)
	불만	1명(0.3%)
	매우불만	-
계		294명(100%)
강연시간만족도	매우만족	119명(40.5%)
	만족	146명(49.6%)
	보통	25명(8.5%)
	불만	4명(1.4%)
	매우불만	-
계		294명(100%)

위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여자(59.9%)가 더 많았으며, 연령으로 볼 때는 30대(28.2%), 40대(24.8%) 그리고 50대(29.0%)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대학생 중심의 20대(17.7%)의 참여도 다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참여자들이 운영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주로 자기계발(52.7%)과 정보습득(33.0%)을 목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강연내용, 재참여

의사, 강연시설과 시간 등의 강연 내·외적인 요소에 대한 만족도 공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경로는 도서관홈페이지(38.8%), 주변 추천(20.7%), 홍보포스터(15.3%), 안내문자(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e-뉴스레터, 공단홈페이지, 강연배포자료, 지역신문 등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2014 “사서가 원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은 사서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는 참여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중 기타의 견에 나타난 몇몇 이용자 참여소감을 통하여 요약되어질 수 있다.

- 참여자A: 오랜만에 역사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인문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독서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네요. 강연 후 책으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참여자B: 사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준비해 강연까지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강연이 정말 유익했고 기존에 알고 있던, 혹은 읽었던 책이지만 저자와 책 속의 의미를 더욱 깊게 알 수 있었어요. 친절한 강연 덕분에 시대적, 상황적 배경과 함께 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했고 고전 독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 참여자C: 강연이 매우 재미있었으며 사서 선

생님들의 준비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목요연하게 강의 준비하시는 강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여자D: 열심히 강연 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강의를 될 수 있도록 발전을 기원합니다.

5. 결론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이라는 관점과 인문학 강좌의 확산이라는 관점을 배경으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와 관련해서 사서들의 전문성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2013년 “사서, 책을 권하다”와 2014년 “사서가 원하는 인문고전 ‘문(文)·사(史)·철(哲) 18’”의 인문학 강좌들의 사례를 그 진행과정과 내용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는 사서들이 기존의 업무에 대한 성찰과 스스로의 비판에서 비롯되어, 수동적인 사서의 역할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임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서관과 사서직 전문성에 대한 참여자나 일반 이용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 동시에 사서들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개

인적 차원에서 자아실현의 구현이다. 사서는 개인의 업무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역량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계발하여 자기가 목적인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기대되는 자질의 함양이다. 도서관의 업무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역사회 정보문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의 전문성이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대중적 이해의 제고이다. 사회적 기구로서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정이 확보되는 것이 바로 사서직의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대중적 이해

가 미진한 경우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분야에서 사서직의 전문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도서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로 인해 사서들의 자질이나 능력이 저평가되거나, 자존감을 상실하는 현실을 직면하는 등 위상이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들의 업무에 대한 성찰과 재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며,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단없는 노력과 자기계발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서직의 전문성이란 사서들의 독백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정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기덕. 2014.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인문콘텐츠학회>의 정체성의 문제. 『인문콘텐츠』, 32: 9-26.
- [2] 김기덕, 이병민. 2014. 문화콘텐츠의 핵심 원천으로서의 역사학. 『역사학보』, 224: 425-448.
- [3] 박은자, 배순자, 최은주. 1997. 『인문과학정보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4] 신봉승. 2011. 『역사란 무엇인가』. 파주: 청아출판사.
- [5] 우응순. 2014. 공공도서관과 시민 인문학. 『도서관문화』, 55(4): 14-19.
- [6] 인문과학연구소 편. 1995.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7] 조찬식. 1996. 우리나라 사서직의 역사적 발전: 1961년에서 1979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3): 67-84.
- [8] 조찬식, 조미아. 2011. 『공공도서관의 이해와 분석』. 서울: 에듀컨텐츠.

[관련 사이트]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http://www.l4d.or.kr/homepage/>>

동대문구청. <<http://www.ddm.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K. 2014. "Humanities and Cultural Contents: The Problem of the Identity of the <Korean Humanities Contents Society>." *Humanities Contents*, 32: 9-26.
- [2] Kim, K. and Lee, B. 2014. "History as the Core Source of Cultural Contents." *Korean Historical Review*, 224: 425-448.
- [3] Park, O., Bae, S. and Choi, E. 1997. *Information Resources in Humanities*. Seoul: KLA.
- [4] Shin, B. 2011. *Reading and Understanding History*. Paju: Cheong-A.
- [5] Woo, E. 2014. "Public Library and Lectures on Humanities for public." *Library Culture*, 55(4): 14-19.
- [6] Institute of Humanities, ed. 1995. *Ideology and methodology in Humanities*. Seoul: SKKUP.
- [7] Cho, C. 1996.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ianship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67-84.
- [8] Cho, C. and Cho, M. 2011. *Understanding and Analyses of the Public Library*. Seoul: Educontents.

